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The Impact of Coping Resources on Positive Change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조 병 은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강 사 서 동 인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신 화 용

상명대학교 가족복지과
조교수 정 현 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 Prof. : Byung Eun Cho

Dept. of Child Dev. & Housing, Kyung Hee University
Lecturer : Dong In Suh

Dept. of Human Dev. &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o. Prof. : Hwa-Yong Shin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ist. Prof. : Hyun-Sook Chu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
| 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Coping resources may be a crucial aspect in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 Using a survey data collected from 275 pair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ived effects of economic resoures, family relational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on positive changes of

*본 연구는 1996년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both mothers and their children.

Results revealed that both mothers and their children perceived positive changes of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mothers) relatively high. The degrees of positive changes of mothers were influenced mostly by family relational resources. In the same token, the degrees of positive changes of children were also affected by family relational resources.

Overall, the findings suggested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resources in explaining the positive change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편모가족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5%에 달한다(통계청, 1992). 편모가족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아버지와 남편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편모가족은 결손가족, 비정상가족, 불안정한 가족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여성개발원, 1984; 고성혜, 한유진, 1995; 박경희, 1987). 편모가족의 어머니는 경제활동율이 높으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과중한 역할에 따른 만성적이고도 일상적인 긴장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크고 스트레스가 많다(정경숙, 1990; 박상희, 1993).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도 축소되고 사회적 지원의 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개발원, 1984; 안명자, 1994). 편모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의 사회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편모가족의 자녀와 양부모가족 자녀를 성역할발달, 학업성적, 학교적응, 반사회적 특성등의 인성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강혜구, 1987; 김정삼, 1990; 이우신, 1992)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편모가족을 불안정한 가족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편모가족의 다양한 가족적 특성에 따른 가족적응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편모가족의 가족생활을 편모와 자녀들의 양 시각에서 본 포괄적인 시도도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화용·조병은(1996)과 정현숙·서동인(1996)은 스트레스 이론과 자원이론적 관점을 통해 편모가족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이제까지의 국내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적 측면과 심리적 기능을 파악하였다. 또한 편모가족의 모와 자녀는 구조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양부모가족에서 편모가족으로의 구조적 변화는 부부체계 및 자녀체계에 영향을 준다. 또한 가족내의 구조 및 역할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체계(확대가족, 이웃, 친구체계 등)까지도 변화를 준다. 선행연구는 편모가족의 모와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이 비교적 높음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편모나 자녀의 지각을 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에 대한 모와 자녀의 지각, 자녀와 어머니가 느낀 자원에 대한 지각, 그의 영향력을 상호작용적인 시각에서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는 부모-자녀의 체계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 가족의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실재에 가까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모와 자녀가 지각한 자원이 두 세대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생활이라는 실재에 대한 지각이 두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세대의 적응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력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족원은 서로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명자, 1991; Bengtson, 1975). 기존의 연구에서는 변화의 내용 중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족이 된 이후의 긍정적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고, 이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긍정적 변화가 편모가족이 된 이후의 적응을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편모가족의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이론의 관점에서 어머니와 자녀라는 각기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는, 그리고 각기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두 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편모가족의 실재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편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편모가족은 양부모가족이 대다수인 사회에서 자원의 부족으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편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자원이론과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따라 경제적 영역, 가족관계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원이 현재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즉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모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예측하는 독립변수로 모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특성을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원은 가족소득, 어머니가 지각한 생활수준 및 자녀가 지각한 생활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가족소득과 어머니와 자녀의 생활형편에 대한 서로의 지각이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지각의 영향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편모가족의 모-자녀관계의 질은 편모가족의 구조적 결손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따뜻하고 응집력있는 분위기가 가족구조의 영향력을 증가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편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 자녀의 편모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을 모-자녀관계에서의 가족관계적 자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사회적 지원으로는 편모가 지난 1년간 받은 경제적, 오락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양과 자녀가 지난 1년간 받은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양이 편모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편모의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개념을 선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이별 후 편모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와 자녀가 지각한 편모의 긍정적 변화를, 자녀의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이별 후 자녀 스스로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와 편모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편모가족의 자녀들은 학업성취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생이므로 자녀의 학교성적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모의 연령과 교육수준도 통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편모가족이 된 이후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자원은 무엇인가?

- 1)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자원은 무엇인가?
- 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자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편모가족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자원은 무엇인가?

- 1)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자원은 무엇인가?
- 2) 자녀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자원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편모가족의 특성과 적응을 밝히기 위해,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표집한 자료(신화용·조병은, 1996; 정현숙·서동인, 1996)의 일부이다. 자료수집은 사회계층과 남녀비율 및 중고등학교의 안배를 고려한 목적적 편의표집으로

학교를 선정하였다. 총 14개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여 집에서 완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300쌍의 편모와 자녀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275쌍의(92%)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연구는 방법론적 제한과 주제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자녀의 연령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자료분석은 SAS/PC를 이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1, 2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등의 기술적인 분석과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크게 4가지로 편모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가족관계적 자원,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받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 및 편모가족이 된 이후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질문지로 구성되어있다. 경제적 자원은 편모가족의 실제소득, 편모와 자녀가 지각한 생활수준으로 측정하였다. 편모와 자녀가 지각한 생활수준은 각각 1문항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지각한다.

가족관계적 자원은 유은희(1991)의 애착과 자율성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문항내용이 중복되거나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은 총 7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Cronbach $\alpha=0.75$ 이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자율성은 총 8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Chronbach $\alpha=0.67$ 이다.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7문항으로 Cronbach $\alpha=0.84$ 이며 자녀의 어머니로부터의 자율성은 8문항으로 Cronbach $\alpha=0.68$ 이다. 애착과 자율성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많거나 자율성이 크다.

사회적 지원은 지난 1년간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종교 및 사회단체로부터 편모가 받은 경제적, 오락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총합과, 자녀가 받은 사회적 지원은 자녀가 지난 1년간 친가(친할아버지,

할머니, 큰/작은 아버지), 외가(외할아버지/할머니, 외삼촌, 이모), 친구·이웃, 종교·사회적 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정서적, 오락적 도움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위는 1점 "전혀 없다"에서 4점 "아주 많이 있었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편모가 받은 사회적 지원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6$, 자녀가 받은 사회적 지원은 Cronbach $\alpha=0.83$ 이다.

편모와 자녀의 적응은 이별후에 나타난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편모의 긍정적 변화는 부모역할수행, 가정관리, 개인적 성장 및 경제적 능력 등의 변화를 묻는 5점 Likert 척도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편모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1$ 이며 자녀가 지각한 편모의 긍정적 변화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5$ 이다.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5점 Likert 척도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0$ 이며, 편모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0.69$ 이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 편모와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은 275쌍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와 편모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편모 42.3세(SD=4.67), 자녀 15.8세(SD=1.70)이며 평균 이별기간은 7.1년(SD=4.5)이다. 편모가 된 이유는 사별에 의한 것이 76.8%로 가장 많고 이혼, 별거 등에 의한 경우도 1/4정도가 된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편모사유에 따라 가족의 적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 대상을 분석한 선행연구(서동인, 신화용, 1996; 정현숙, 서동인, 1996)에 의하면 이혼과 사별에 따라 전반적인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

고 분석하였다.

편모의 학력을 보면 65.6%의 편모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편모도 13%에 이르고 있다. 또한 10명중 8명의 편모가 취업하고 있으며 취업 직종은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생산직에 치우쳐 있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85.5%가 핵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3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61만원-90만원 사이가 가장 많다.

자녀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 37.3%, 여학생 72.7%이며 중학교학생 47.9% 고등학교학생 54%이다. 자녀들의 학교성적을 보면 상위 25%가 30.3%, 상위 25-50%가 24%, 50-75%에 속하는 경우가 28.8% 그리고 75%이하가 16.9%에 이른다.

2. 연구문제 1: 편모가족이 된 이후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자원은 무엇인가?

편모가 지각한 남편과의 이별후 나타난 자신의 긍정적 변화평균은 3.77(SD=0.57)로 자신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비교적 높다. 또한 자녀도 아버지와의 이별 후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를 높게 지각하고 있어(평균=3.85, SD=0.66) 편모와 자녀 모두 편모의 긍정적 변화를 높이 지각하고 있다. 편모와 자녀가 지각한 자신과 상대방의 긍정적 변화와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표 1>과 같으며, 위계적 회귀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에 의하면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과 자녀의 변화와, 자녀가 지각한 자신과 모의 변화는 서로 상

<표 1>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6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000																	
2. 0.358	1.000																
3. 0.437	0.206	1.000															
4. 0.335	0.438	0.314	1.000														
5. 0.089	0.050	0.060	0.088	1.000													
6. -0.092	0.084	-0.178	-0.063	0.064	1.000												
7. 0.046	0.007	0.081	0.135	0.381	-0.056	1.000											
8. 0.033	0.020	-0.001	-0.121	-0.150	0.103	0.043	1.000										
9. 0.118	0.069	0.142	-0.001	0.033	-0.049	0.177	0.256	1.000									
10. 0.100	0.173	0.150	0.057	0.030	-0.078	0.104	0.212	0.589	1.000								
11. 0.062	0.084	0.021	0.093	0.160	-0.014	0.273	0.342	0.410	0.276	1.000							
12. 0.129	0.369	0.083	0.493	0.059	-0.018	0.163	0.016	-0.087	0.035	-0.101	1.000						
13. 0.129	0.350	0.020	0.217	-0.127	-0.001	-0.090	-0.006	-0.117	-0.046	-0.065	0.213	1.000					
14. 0.589	0.193	0.378	0.349	0.010	-0.143	0.011	0.168	0.092	0.080	0.060	0.189	0.105	1.000				
15. 0.173	-0.035	0.144	-0.074	0.010	0.076	-0.001	0.087	0.018	0.004	0.092	-0.234	0.114	0.058	1.000			
16. 0.154	0.111	0.072	0.063	0.150	0.074	0.068	0.184	0.178	0.216	0.141	0.024	0.069	-0.012	0.014	1.000		
17. 0.315	0.087	0.229	0.229	-0.283	-0.089	-0.180	0.103	0.110	0.167	-0.024	0.065	0.219	0.344	0.058	0.321	1.000	
평균	3.84	3.77	3.24	3.61	15.84	2.28	43.03	2.48	2.58	2.85	3.91	3.51	3.92	3.67	3.95	27.78	91.39
sd	0.66	0.57	0.70	0.63	1.70	1.09	4.65	1.27	0.69	0.53	1.67	0.62	0.39	0.77	0.40	7.69	27.87

- | | | | |
|-------------------|------------------|-------------------|---------------|
| 1. 자녀가 지각한 모의 변화 | 6. 자녀의 성취 | 11. 가족소득 | 16. 모가 받는 지원 |
| 2. 모가 지각한 자신의 변화 | 7. 모의 연령 | 12. 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 | 17. 자녀가 받는 지원 |
| 3. 자녀가 지각한 자신의 변화 | 8. 모의 교육수준 | 13. 모의 자녀에 대한 자율성 | |
| 4. 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 | 9. 모가 지각한 생활수준 | 14. 자녀의 모에대한 애착 | |
| 5. 자녀의 연령 | 10. 자녀가 지각한 생활수준 | 15. 자녀의 자율성 | |

〈표 2〉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자녀연령	.001	.004	-.000	-.001	.018	.053	.008	.020	.005	.012	.048	.123
학교성적	-.052	-.099	-.051	-.096	.053	.101	.065	.104	.051	.082	-.015	-.025
어머니연령	.003	.031	.002	.017	-.005	-.041	-.005	-.137	-.008	-.058	-.002	-.012
어머니교육수준	.002	.004	-.006	-.014	-.012	-.028	.044	.082	.010	.019	-.053	-.102
가족소득			.022	.068	-.039	.112			.041	.103	-.001	-.003
어머니지각 생활수준		-.038	-.047	.013	.016		.020	.021	.065	.068		
자녀지각 생활수준			.067	.062	.169	.155			.115	.090	-.02	-.016
애착(모)					.274	.297***					.049	.046
자율성(모)					.445	.300***					.059	.034
애착(자녀)					.107	.145*					.464	.545***
자율성(자녀)					-.023	-.016					.242	.149*
어머니가 받는 지원					.006	.083					.013	.156*
자녀가 받는 지원					-.002	-.083					.002	.095
절편		3.72		3.65		.288		3.64		3.42		-.42
R ²		.01		.02		.29***		.02		.04		.43***
R ² 증가량				.01		.27***				.02		.39***

*p<.05 **p<.01 ***p<.001

관이 높아($r=.34, .36, .44$) 어머니의 변화와 자녀의 변화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애착($r=.37$)과 자율성($r=.35$)은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애착($r=.59$)은 자녀가 지각한 모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높다. 즉, 모와 자녀와의 애착과 자율성은 서로의 긍정적 변화와 관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넣은 1 단계에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1%에 불과하였으며 2단계에 경제적 자원을 추가하여도 설명력은 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3단계에서 가족관계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을 추가한 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에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beta=.297$),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느끼는 자율성($\beta=.300$),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beta=.145$)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

로부터 느끼는 자율성이 클수록,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 스스로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였다고 지각하고 있다. 독립변인들은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의 변량의 29%를 설명하고 있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도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자원의 설명력은 낮았다. 그러나 3단계에서 가족관계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을 추가한 결과,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beta=.545$),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자율성의 정도($\beta=.149$), 그리고 지난 1년간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beta=.156$)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으며 독립변인들이 전체변량의 43%를 설명한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보다 자율적이라고 느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는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고 있다.

3. 연구문제 2: 편모가족이 된 이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자원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 평균은 3.61(SD=.63)이며 자녀 스스로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 평균은 3.24(SD=.70)로 어머니와 자녀 모두 아버지와의 이별후 자녀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사회인구학적 변수나 경제적 자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을 추가한 마지막 모델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181$),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beta = .403$), 그리고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beta = .286$)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밝혀 졌으며

독립변인들은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 변량의 37%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편모는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고 있다.

자녀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자원변수를 넣은 1, 2단계에서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가족관계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을 추가한 3단계에서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beta = .314$),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자율성($\beta = .157$)이 유의한 영향변수로 밝혀졌다. 독립변인들은 전체변량의 22%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율적이라고 느낄수록,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고 있다.

<표 3>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						자녀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자녀연령	.007	.045	.018	.047	.016	.043	.017	.040	.018	.043	.028	.068
학교성적	.024	.043	.022	.039	-.007	-.013	.120	.186	.113	.175	-.081	-.126
어머니연령	.008	.057	.008	.061	.009	.068	.007	.048	.005	.036	.007	.046
어머니교육수준	-.058	-.114	-.060	-.119	-.089	-.181**	-.005	-.008	-.019	-.035	-.045	-.081
가족소득			-.010	-.028	-.024	-.066			-.021	-.051	-.026	-.062
어머니지각 생활수준			-.039	-.042	.045	.049			.091	.089	.085	.083
자녀지각 생활수준			.148	.121	.030	.026			.120	.088	.079	.060
애착(모)					.405	.403***					.062	.054
자율성(모)					.174	.107					-.090	-.050
애착(자녀)					.231	.286***					.285	.314***
자율성(자녀)					.017	.011					.273	.157*
어머니가 받는 지원					.006	.080					.005	.054
자녀가 받는 지원					.000	.002					.003	.106
절편	3.05		2.74		.116		2.33		1.95		.085	
R ²	.02		.03		.37***		.04		.06		.22***	
R ² 증가량			.1		.34***				.02		.16***	

*p<.0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자원론적 관점에서 편모가족이 된 이후 편모와 자녀가 지각한 긍정적 변화에 경제적, 가족관계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편모가족이 된 이후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에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느끼는 자율성의 정도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는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자율성의 정도와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을 미쳤다.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는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자율성의 정도가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과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영향을 미친 반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 자신의 긍정적 변화에는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분적으로 가족체계적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 자신과 자녀의 애착수준이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편모에게 있어 자녀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청소년기에 속해있는 자녀의 경우 독립성을 지향하는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어머니의 지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자녀와 모의 애착과 자율성을 조사한 연구(조병은, 유은희, 이정순, 최혜경, 1996)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여러 자원중에서 가족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편모가족의 우울감과 자존감을 통해 심리적 적응을 본 선행연구(신화용, 조병은 1996; 정현숙, 서동인

1996)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편모가족에게는 부모-자녀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혼에 초점을 맞춘 외국연구에서도 편모의 자녀와의 관계 및 편모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편모와 자녀의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Gongla & Thompson, 1987; Mc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eige, 1993).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의 특성에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편모가족의 특성을 보면 경제적 자원은 매우 부족하고 편모가 된 기간이 비교적 길다. 따라서 사별이나 이혼 직후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벗어난 시기로 비교적 여러 상황이 안정되고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적 상황인 부모-자녀관계가 서로의 긍정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셋째,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자녀와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 편모와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양이 전반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의 형태도 정서적 지원에 치우쳐있기 때문이다(신화용, 조병은, 1996; 정현숙, 서동인, 1996). 그러나 외국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이나 이웃, 친구의 지원이 어느 정도 편모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록 남편의 부재로 인해 친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약화될 수 있고, 직업을 가진 편모가 친족이나 이웃과 접촉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나 이들로 부터의 지원은 편모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편모가족에게 일상생활의 도움과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편모가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높게 지각한 결과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기대수준이 낮고, 어려운 현실생활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편모가족이 된 이후 편모와 자녀의 적응에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적응을 자원이론과 가족 체계론적 시각에서 보고자 한 본 연구는 가족 체계론적인 관점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의 역동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에 대한 여러 자녀의 지각과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강혜구(1987). 결혼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 비교.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고성혜·한유진(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 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20호, 60-73.
- 3) 김명자(1991). 가족학연구와 일반체계론적 접근.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 교문사.
- 4) 김정삼(1990). 정상가정 아동과 편부모 아동의 인성 특성비교.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박상희(1993). 저소득층 모자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 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백경희(1987). 빈곤모자가족 가족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신화용, 조병은(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 심리적 적응. '96 가정복지 세미나자료집. 서울특별시, 가족관계학회.
- 8)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이우신(1982). 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정경숙(1990). 결혼가정학생의 가정환경 및 성격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정현숙, 서동인(1996). 편부모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 및 사회 심리적 적응. '96 가족복지 세미나 자료집. 서울특별시, 가족관계학회.
- 13) 조병은, 유은희, 이정순, 최혜경(1996). 3세대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 특성과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91-202.
- 14) 통계청(1992). 인구동태통계연보.
- 15) 한국여성개발원(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 16) Bengtson, V. L.(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 17) Gongla, P., & Thomson, E. Jr.(1987). Single parent families. In M. Sussman & S. Steinme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397-418). NY: Plenum University of Minnesota.
- 18) McLanahan, S., & Booth, K.(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19) Richards, L., & Schmiede, C.(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277-285